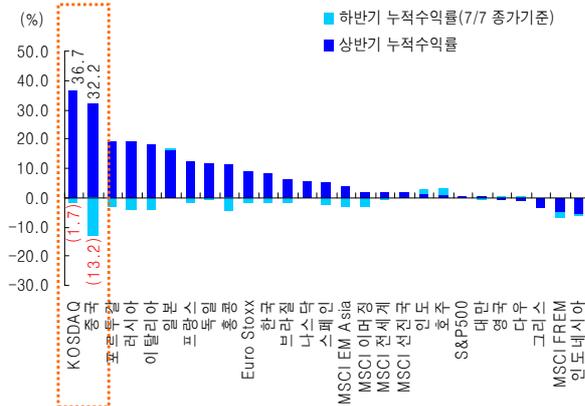


코스닥, 바이오 發 거품붕괴?

1. 상반기 글로벌 증시 수익률. 코스닥 1위, 중국 2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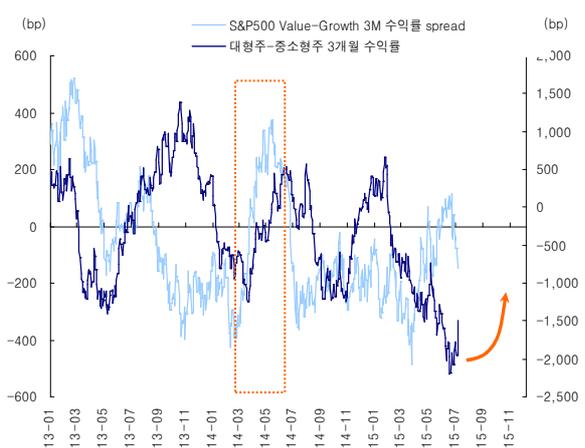
- 최근 KOSDAQ과 중국(상해종합)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음
- 양 증시의 급락세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단기과열에 따른 기술적 피로감
 - 상반기 글로벌 증시 수익률 1위 KOSDAQ +36.7%, 2위 상해종합 +32.2%
- 상반기 KOSDAQ과 상해종합지수의 공통된 특징은 국내(본토)자금에 의한 랠리였다는 점임
 - 연쇄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대출규제 완화, 단기유동성 공급 등으로 국내자금의 증시유입이 활성화된 결과로 판단 (중국증시와 코스닥의 공통점 4/20발간 참조)

2. Gilead Science의 조정 극복사례. 실적으로 증명하라



- 2014년 4월 Gilead Sciences 發 나스닥 성장주 동반 급락 사례를 참고
 - 당시 나스닥 바이오를 포함한 여타 성장주들은 단기과열로 인한 버블논란이 한창이었으나,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밸류에이션 정당화 (*주황색 숫자는 컨센서스와 실제 매출간의 괴리)
- KOSDAQ 제약바이오 및 여타 성장업종, 단기과열 논란 고조
- 성장기대감에만 의존한 추가 상승여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. 2Q 이후 실적개선 가시성이 확인되는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 진행될 전망

3. 국내 자금, 대형주로의 순환매 가능성이 높아짐



- 전일 국내증시 성장주의 전반적인 급락이 증시로부터의 자본유출은 아님
 - 대외 매크로 risk에 의한 외국인 자금유출이 아니라 국내 기관자금의 매도가 급락세를 주도했기 때문
- 바이오 發, 나스닥 급락 및 조정구간 당시 미국에서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 영역의 수익률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냄 (점선박스 구간)
- 전일 대규모로 출회된 국내기관 매도자금이 증시로부터의 자금유출이 아니라 증시 내에서 순환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증시에서도 가치주 영역에 포함된 대형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임 (은행/유틸리티 업종 최선호)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최근 KOSDAQ과 중국(상해종합)증시의 급락세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단기과열에 따른 기술적 피로감
- KOSDAQ 제약바이오 및 여타 성장업종, 단기과열 논란 고조 성장기대감에만 의존한 추가 상승여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. 2Q 이후 실적개선 가시성이 확인되는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 진행될 전망
- 전일 대규모로 출회된 국내기관 매도자금이 증시로부터의 자금유출이 아니라 증시 내에서 순환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증시에서도 가치주 영역에 포함된 대형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임 (은행/유틸리티 업종 최선호)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